



하수도국 관계자를 자칭하는 업자가 설치 점검과 수리를 권유하는데 맡겨도 괜찮을까요?
우편함 안에 '몇천 엔~몇만 엔짜리 배수관 청소를 지금이라면 ○○엔에 할 수 있다'라는 내용의 전단이 있었습니다. 하수도국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?



악덕 업자에게 주의하세요!

최근, 방문업자가 교묘한 말로 하수도국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암시해서 택지 내 배수설비(하수 배수관 및 오수받이 등)의 점검, 청소, 수리 등을 권유하고, 거절하면 위압적으로 행동하거나, 협박해서 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.

"주의하시기 바랍니다!"

하수도국과 위탁업자는 고객 택지 내 배수설비의 "점검, 청소, 수리" 등을 절대 실시하지 않습니다!
(공공도로의 오수받이와 빗물받이 청소는 행정기관에서 실시합니다)

문제 발생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

- 1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.
- 2 멋대로 작업하게 하지 마십시오.
- 3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하지 마십시오 (도장이나 사인은 신중하게).
- 4 하수도국과의 관계를 암시하면 하수도국이 발행하는 '신분증명서'와 '작업위탁증명서'를 확인하십시오.

- ◇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가까운 하수도국 하수도 사무소 (P28 참조) 로 연락하십시오.
- ◇계약(쿨링오프(청약 철회 제도) 포함)에 관한 내용은 소비자청 소비자 핫라인(188)에 상담하십시오.
- ◇강요를 받거나, 위협을 느끼는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하십시오.
- ◇배수설비 공사나 청소 등의 상담은 가까운 '배수 무엇이든 상담소'의 협력점포에 상담하십시오. 앞 페이지의 마크를 찾으세요.